

뉴스레터



제3권 9호 2013년 9월 8일

MONTHLY NEWSLETTER OF DELAWAR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선교는 나눔입니다"

담임목사 칼럼



송중남 목사

우리교회 세 번째 단기 선교팀이 과라니족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올해 우리교회는 네 번의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를 직접 방문하기로 되어 있

때문입니다.

우리교회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과라니족 선교를 작년 부터 지원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그들을 찾아 갔습니다. 참 먼길이었 습니다. 가는 것만, 비행기를 타고, 기다리고,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자동차를 타고, 30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려서 그곳에 도착했습니



고, 그분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어 가지면 그냥 웃기만 해도 그 웃음 속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등등 많은 얘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는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나눔'이라는 것에

습니다. 이제 10월에 가는 아이티 의료 선교팀만 다녀오면 올해 계획된 모든 단기선교를 마치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무슨 선교팀들이 이렇게 많이 가느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꼭 선교지를 방문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서 많은 일을 하고 안하고, 또는 어떤 일을 하고 오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선교지를 직접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는 것 그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지만 누군가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같은 아얀 이를 내보이며 활짝 웃어 주는 것 그 자체로 그들은 반가움이고, 즐거움이고, 힘이 되고, 아주 작은 희망 씨앗 하나라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



다. 그곳에 가서 선교단원 6명 전원은 안장로님을 중심으로 의료 진료, 그리고 약을 나누어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사진 한 장없는 과라니족을 위해 가족사진 등..., 진료로, 말씀으로 예수님도 소개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그들을 찾아간 것, 그것이 이미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나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만을 위해 시간을 썼었는데, 그분들을 찾아가는 시간은 벌써 그분들과 시간을 나누어 쓰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게면 통역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들에게 나누어 주었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때는 10불, 20불, 사실 별 느낌 없이 쓸때도 많은데, 그 10불 20불이 선교지에서는 몇 백명, 아니,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물을 살수 있는 돈이 되고, 얼마나 많은 허기진 분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큰 돈인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한달에 우리 각자각자가 10불 20불만 따로 누군가를 위해서 떼어서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큰 선교입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생활을 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시간을 나누어 쓰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었다는 뜻일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물건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뒷면으로 이어집니다)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소식지

(담임목사 컬럼 이어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더니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새도행전 2장 끝 부분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 2:44-47)

보십시오, 나누었더니 그 결과는 구원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선교는 구원 받는 사람들을 많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시작은 나눔이었습니

다. “선교는 나눔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면...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구원 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선교지를 찾아가는게 아닙니다. 휴가를 선교지에 가는 것으로, Holy Vacation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안이했는지를 알게 되고, 화들짝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찾아보면 우리 가진게 너무 많고 그래서 나눌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마음과 물질...조금이라도 나눈다면 그 다음의 역사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송종남 목사

호피 선교후...

힘들었지만 즐거움에 가까웠던 이번 호피 선교.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아리조나에 있는 호피마을, 주위에 나무와 꽃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막에 있는 작은 인디언 부족; 자기부족의 문화가 강해서 크리스찬으로 쓰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기분나쁜(?) 그런 미신들을 믿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리려는 것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서인지, 벌써부터 ‘쿠치나’라는 신을믿고, 교회근처에 오지도 않는 아이들과 선교동안에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을 위해 온것이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 온 아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속 이야기를 함께 나눌때 너무 감사하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피는 생각보다 많이 알려진 부족이여서 많은분들이 선교를 오십니다. 이 작은마을에도 한국분들이 몇분 살고 계십니다. 그 중 한분이 임태일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호피라는 곳까지 가족과 함께 오신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아주 값진 말씀속에서 ‘행복을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지금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교사님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막한가운데에 꽃들과 나무들이 자라

나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가든으로 만드시고, 이곳에서 행복을 찾는 모습이 정말 말씀가운데서 사시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호피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 마을에 변화를 주실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곳 호피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없는, 사랑을 원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릴때부터 자유롭게 뛰어놀며 자라서, 가끔씩 저희가 참을수없을정도로 말을 안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속에서 아이들을 더 큰 사랑으로 대하는 순간 아이들도 점점 저희를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곳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다시 나눌수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교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냈었는데, 선교후에 알게된 것은 제가 그 아이들에게 준 사랑보다 그아이들이 제가 준사랑이 더 큰것이

였습니다. 아이들이 저희에게 와서 투정부리는 것도, 장난을 치는것도, 다 그 아이들이 저희에게 사랑을 주는 방법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VBS가 끝난후에 아이들에게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며 소리치고, 아이들이 창밖에서서 저희를 부르는것도 모른채하며 지낸것이 너무 미안하고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후회가 다음 선교의 첫걸음이 되기에, 벌써 다음에 아이들을 만날땐 어떨까하고 기대부터 됩니다.

선교의 일부분은 끝이났지만, 아직 모든 선교가 끝이 난것이 아니기에,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있던지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 아이들과 그 부족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를 하는것이 선교의 남은부분인것 같습니다. 성경속에 나온 기적처럼 죽은사람이 다시살아난 그런 기적은 없었지만, 선교지에 있는동안 그 기적보다 더 크고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였지만 돈으로는 절대 살수없는 아주 값진 시간을 10명의 소중한 missionaries와 함께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사모님, Janet 언니, 동민오빠, Enoch 오빠, Jacob 오빠, Sam, 민혜, 세빈, 신이까지.. 교회에서 보던 모습말고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들을 볼수있어서 좋았고, 모두 선교를 끝까지 할수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속에 저희를 호피까지 인도해주시고 함께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Diana Yun
J.STrm Youth Group

아이티 선교 다녀와서...

지난 7월 21일 부터 26일까지 아이티를 단기선교로 갔다 왔습니다. 시작 전에 일단은 하나님한테 감사함을 드리고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한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가기 전에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함과 임재 안에 이번 선교를 무사히 다녀오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그들한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에 나왔던 어린아이가 잠들었던 것 같이 저 또한 잠들었던 영혼들을 깨우고 싶은 그런 간절함에 이번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들뜬 마음에 갔지만 정작 가서는 저의 부족함과 겨자씨 크기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하심을 채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고 같이 노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작 가서는 우리가 아이를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아이들에 순수함과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저희는 그들에서 선물과 과자를 줬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저의 무릎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자기 과자를 반으로 나누면서 저한테 줄려고 했습니다. 저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만약 내가 저 아이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똑 같은 행동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실천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일찍 어렸을 때 도망가셨고 얼마 전에는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씩씩하게 그 아이가 말하길 '괜찮아 예수님이 날 붙잡으실 꺼야.' 난 이런 기본적인 믿음도 없으면서 무슨 사랑과 복음을 들고 왔는지 허무함이 뒤따랐습니다.

이렇게 아이티 사람들의 기도부탁은 '예수님' 아니면 '성경책' 이 많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아이티는 세상 것들을 원할 줄 알았는데 정작 그들은 '오직 주님' 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내가 아이티 사람을 잠에서 깨운 것이 아닌 그 사람들이 저를 영적으로 깨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 것은 비록 아이티가 세상에서 제일 못살고 연약하나 하나님은 아이티에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박종만
Samuel Park
영어예배 청년부



과라니 선교

작년에 이어 우리교회는 6명(송종남목사님, 안세현, 안의숙, 조영훈, 조현희, 이승섭)의 단기선교단을 8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아르헨티나의 과라니 인디오 지역으로 파송했다. 비자관계로 공항에서 가슴졸이는 2시간을 보낸 후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30시간만에야 선교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작년과 달리 Pozoazul(푸른샘)의 이른 봄의 한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40-50도에 비비람이 몰아쳤다. 변

변치 못한 의복 덕분(?)에 모두 감기에 걸렸다. heater가 없는 선교관이라 거실에 있는 벽난로가 유일하게 따스함을 주었다.

이광보선교사님의 일정에 따라 다음날(8월 21일)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다. 7번의 진료로 400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100명에게 이발을 해주었고, 한번의 의학강연, 병원방문, 3번의 설교를 했다. 특별히 목사님의 설교(제목: 어머니같은 교회, 여호와와 애설 때)에 원주민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 듯 했다. 인디안들의 상태는 여전히 비참했다. 추운날씨인데도 외투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었다. 신발도 없이, 불결한 옷을 입고, 10대 엄마가 2-3명의 아기를 안고 무언가 얻어가



를 원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치약, 치솔, 비누, 수건, 머리빗, 비타민, 회충약을 나누어 주었다.

우리들의 사역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는 없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각 마을마다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일을 위해 신학교 분교를 준비중에 있으나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 선교사님은 평신도 전도사를 빨리 양성할 계획이다. 이 일을 위해 우리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헌신했으면 한다.

우리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드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9/5/2013
안세현 원로장로



한어 청년부

2013년 2월부터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우님들의 도움으로 한어 청년회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성원은 다양해서 Undergraduate, Graduate, 그리고 Postgraduate 과정 중의 기혼 혹은 미혼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합니다. 적은 숫자이긴 하나 교회 도서관이나 회의실 등에서 매주 예배 후 두란노 제자훈련 교재를 중심으로 1시간 내외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묵상을 통해 구성원들 상호간에 서로 배우고,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듯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에서

혹은 다른 장소에서 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일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룹 activity로 sight & sound theater에서 “Noah”를 관람했으며, Brandywine Park으로 Picnic을 다녀왔습니다.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 그중에서도 한

인 청년 모임은 참으로 특이한 모임인 듯 합니다. 대부분 학생이고 공부를 마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흠여지는 교회’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을 함께하며, 처음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거나 더욱 성장하여 떠날 수 많은 청년 크리스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행하는 이 곳 델라웨어한인교회에서 또 다른 소중한 만남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어 청년부 인도자
전광승 & 손현주



바나바 목장을 소개합니다

작년에 목장이 구성되기 전에 목장을 두고 기도하기를 교회의 수평적인 이동 및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던 시기에 앞으로의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함께 키우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인 목장을 원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앙인들이 목장을 통하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업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는데, 아이들이 많은 젊은 목장 구성원들로 바나바 목장을 만들어 주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바나바 목장의 구성원들이 수평적인 이동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관계로 이 목장을 통해서 감리교를 더 알게 하고, 예수님의 지상목표이신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목장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장이 구성되어지고 선교지를 선택하게 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기도 중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에 아르헨티나에서 이광보 선교사님이 방문하셨을 때에 남미의 선교사역에 대해 자세히 듣고 알게 되어 그 곳을 두고 기도하고 목원들과 함께 의논한 후에 과라니를 선교지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과라니는 아직 많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성원의 대부분이고,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곳의 토속 신앙과 뒤섞여진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기독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선교사님이 힘쓰고 계신 지역입니다. 특히 과라니 내에서도 각각의 부족들이 각 부족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거나 신학생을 키워내는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꿈꾸고 계획하시는 일은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를 통하여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을 통하여 부족 내에서 신학생들을 키워내고, 그 신학생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생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바는 8월에 열흘 동안 과라니로 나가는 교회의 의료선교팀에 합류하여 선교지를 직접 보고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선교지를 후원하여야 할 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우리 가정과 목장이 합하여 과라니에 있는 2명의 신학생을 후원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신학생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교육비를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기쁜 일, 슬픈 일 등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함께 믿음 안에 나누고, 각 가정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이 미국땅에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될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따르게 되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희생들을 함께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 조언하고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그러한 목장과 목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남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자: 김미선 집사)

교인탐방

텔라웨어한인감리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찾아 그 분들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취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 9월의 신앙탐방은 정성은/견해 (예원, 지원) 성도님 가정입니다.



1. 가족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남편, 저, 그리고 딸 두명 있어요. 남편은 모기지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CPA 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미국 온 이후로 아이 키우며 살다가 뒤늦게 간호대 편입해서 이번주부터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큰 딸은 올해 12살, Cab Calloway 중학교 7학년이고 작은 아이는 8살, 초등학교 3학년 입니다.

2.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은행에 근무했어요.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큰 아이도 낳고 살다가 어느날 남편이 MBA 공부하고 싶으면서 유학을 가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미국행이 저희들을 미국으로 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대학때 와 봤던 미국이 좋아 보였고 직장 생활에 지친 남편이 안쓰러워서 동의를 하고 오게 됐는데, 실제로 와보니 이민생활이 아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가족들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 동안 늘 있었던 사람들과 사물들이 바뀌니 처음엔 힘들일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젠 여기가 고향 같고 모든게 비교적 익숙해져서 그냥 내 고향이려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3.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요?

저희 둘다 어릴적부터 교회 다녔어요. 아마 친구들 만나서 노는게 재밌고 유년주일 학교 선생님들의 사랑때문에 교회에 다녔던거 같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시기는

둘 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돌아보면 중.고등.대학부등 모든게 참 무난했고 그만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4. 가족들이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제목이 있다면?

건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건강'을 기도제목으로 늘 꼽을 걸 볼 땐 좀 '식상'하다 라는 생각도 하고 '참 평탄하진가 보다' 라는 생각도 했는데, 제 나이가 들어가고 보니 저 역시 '건강'에 관한 기도가 먼저 나오네요. 제 시어머님도 지금 혈액암을 앓고 계셔서 남편이나 저나 맘이 늘 편치 않아요. 그리고 저희도 부양할 가족이 있으니 늘 저희 둘이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요.

5. 텔라웨어 한인감리교회에서 신앙의 길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참 오기 주저했는데 새교우의 환영과 교인들의 환대에 많이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과 믿음의 교제 나누고 싶어요.

(인터뷰: 강태희 집사)

추천도서

“플라이잉 (Flying)” 저자: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의 플라이잉』은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희망의 복음 전도자 닉 부이치치의 러브스토리, 결혼, 아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도전의 상징이자 희망의 증거가 된 닉 부이치치가 아파로로서의 삶을 이야기한다.

1982년 12월 출생. 세르비아 출신의 신실한 목회자인 아버지 보리스와 어머니 두슈카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8세 이후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 아래 양육 받았다. 부모의 교육 철학으로 정상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학생회장을 지냈고, 오스트레일

리아 로건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을 전공했다.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드럼을 연주하고, 골프공을 치고, 컴퓨터를 한다. 15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19세 때 첫 연설을 시작한 이래 학생, 교사, 청년, 사업가, 여성, 직장인 및 교회 성도 등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해 왔다. 현재 미국에서 LIFE WITHOUT LIMBS(사지 없는 삶) 대표로 있다. 한국에서는 2008년 MBC 최윤영의 'W'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소개되어 많은 도전을 준 바 있다. 지금까지 30개 국 이상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닉 부이치치의 허그(HUG)'는 그의 첫 번째 책이다.

(도서부: 송미선 집사)



2013년 8월 포토갤러리



과라니 의료선교 8월 19일-29일



청소년부 Flow Retreat 8월 16일-19일



True Worshipper 12 찬양집회 - 8월 24일



September 2013

9월의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EM 연합가족예배	2	3	4 *사이엠 목장주최 수요예배	5	6	7 * 선교부주최 노숙자선교
8 * 전교인 아유회	9	10	11 * 나눔 목장 주최 수요예배	12 * 아름다운 학교 개학	13	14
15	16	17	18 * 쏘레이 목장 주최 수요예배	19	20 * 연극관람 "노아"	21 *EM 노숙자선교 * 새교우환영회
22	23 * Meals on Wheels	24	25 * 청년 목장 주최 수요예배	26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훈련	27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훈련	28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훈련
29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훈련	30	31				

October 2013 - 10월의 일정

- 10월 6일(주일): EM 연합가족예배, 세계성찬주일(성만찬), 목장지도자 훈련
- 10월 7일(월)~11일(금): 아이티 의료선교
- 10월 16일(수): 재정위원회 모임
- 10월 19일(토): 청소년 노숙자 선교
- 10월 20일(주일): 정기 임원회
- 10월 26일(토): 전교인 바자회
- 10월 28일(월): Meals on Wheels

D K U M C
2013년 단기선교
 2013 MISSION TRIPS

호 피 (청소년) 7.8~7.13
 아이티 (2세 청년) 7.21~7.26
 과라니 8.19~8.29
 아이티 10.8~10.12



예배와 모임 안내

중보기도	주 일	오전 10:30-10:50
1부 한어 예배	주 일	오전 8:00
영어 예배	주 일	오전 9:45
2부 한어 예배	주 일	오전 11:00
아동부 예배	주 일	오전 11:00
청소년 예배	주 일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화~토	오전 6:00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오후 7:50
청년부 예배	금요일	오후 7:30
청소년부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여선교회 Q.T. 모임	월, 금요일	오전 10:00
아름다운 학교	목요일	오전 10:0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JOHN 4:24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Delawar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717 Loveville Rd.

Hockessin, DE 19707

(302) 235-5735, Fax (302)235-5736

STAMP

